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21 Chapter 장대에 달린 놋뱀

민 21:4~9
찬송가 343장 (울어도 못하네), 찬양 92장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배울 말씀

1. 교회 안에서의 불평과 원망은 심판을 초래함을 압니다.
2. 구원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임을 압니다.

마음 열기

위 사진은 요르단의 느보 산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무엇을 표현한 작품이라 생각됩니까? 제목을 붙여 보고, 떠오르는 느낌을 적어 보세요.

말씀을 이해하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에돔 왕에게 요청했으나 에돔 왕은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에돔 땅 통과를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땅을 우회하여 멀고 척박한 남쪽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칠고 험한 길로 돌아가게 되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민 21:5)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고 이로 인하여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시면서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 놋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으로써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바라 봐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죄의 독에 쏘여 죽게 된 영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봄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입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4~15)

And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even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4~15)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고전 10:9~12)

   (요 1:29~34)

   (고전 1:18~21)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내가 불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죽어 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나에게 누군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준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기록해 봅시다.

2.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 상식이나 이성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들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중 생각나는 것을 2가지 더 적어 봅시다.
   ①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말씀하신 일
   ②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제 7일에는 일곱 바퀴를 돈 후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일
   ③
   ④

3. 누가복음 5장 1절~6절을 읽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4.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들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유들을 적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 피어오를 때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우리들의 이야기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우리는 양질의 서적들을 통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서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책은 이렇게 우리 삶에 많은 정보
(Information)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Information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변화(Transformation) 시킵니다.

Transformation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6~17)

여호와를 앙망하라 (찰스 스펄전이 거듭난 이야기)

1850년 1월 6일. 찰스 스펄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확실히 거듭나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 스펄전은 많은 내적인 방황과 고뇌를 겪었습니다. 훗날 스펄전은 그날들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약 5년간이나 심히 괴로운 시기, 그러니까 암흑기를 지낸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 나는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도 그와 같은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나에게서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패역무도한 죄인이었다. 결국 나는 내 자신을 율법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모세를 만났다. 하나님의 선한 법 곧 십계명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십계명을 대하고 그것을 내게 비추어 보았을 때,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는 확실히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내 마음은 빛을 잃은 태양과 같았고, 내가 지은 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존재하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나를 빠뜨리고 말았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이렇다 할만한 해답을 받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마음은 더욱 답답해졌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여러 가지 이론을 꾸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선민의 특권을 가졌다는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모두 헛수고였으며, 그 특권은 내 것이 될 수 없었다. 내 문제는 바로 '나는 확실히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율법만으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스펄전은 너무도 답답하여 콜체스터의 모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뭔가 해답 찾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고, 어떤 설교자도 스펄전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유쾌하게 설교를 들었으나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까?'하고 고민하던 스펄전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좋은 말씀 잘 들었구나.'하는 생각만 머리 속에 남을 뿐 마음 속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설교자는 항상 율법에 대해서만 설교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도 다 실천할 수 없는 고통의 멍에를 교인들한테 씌울 뿐이었고, 인간 행위의 열심만을 강조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밭은 갈아지는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씨가 떨어지지 않아 아무런 결실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스펄전은 당시의 설교자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내용으로 설교한 것을 수없이 들었고, 성경에서도 읽었지만, 여전히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던 스펄전의 전 생애를 바꾸어 놓은 날이 바로 1850년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날 스펄전은 우연히 들른 교회에서 어느 평신도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스펄전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때를 가끔 생각하는데, 만일 그날 아침 엄청난 눈보라가 치지 않았다면 난 지금까지도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천만 다행히도 하나님이 주신 눈보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날 아침 눈이 너무 와서 길이 막혀 버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보잘것 없는 조그만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예배당에는 이십 명이 채 못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눈보라 때문에 목사도 나오지 않았다. 이윽고 한 초라한 사람, 아마도 양복점 직공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두 수선공처럼 보이는 이가 강단 위로 올라갔다. 그 사람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본문을 외워 대는 것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준비된 원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본문은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사야 45장 22절이었는데, 그 사람은 본문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윽고 그 수선공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서 '앙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앙망한다는 것, 그러니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다리를 든다거나 손가락을 움직일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 같은 곳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도 볼 수 있지요. 바로 이와 똑같이 성경 말씀에도 바라보기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자기자신만을 바라봅니다. 봐야 아무 소용없는 자기자신을 바라 본다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지금 당장 그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이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힘을 주어 말씀을 전하던 그 사람은 한 순간 숨을 돌리고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승천했다.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았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고 예수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난 그 평신도는 강당 바로 밑에 앉아 있던 스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처음 참석한 스펄전이 금방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펄전을 향해, "당신이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일생 동안 가련할 것이며 죽어서는 더 비참하게 되어 항상 슬피 울 것이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소!" 그리고 힘을 주어 다시 말했습니다.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지금 바라보시오!"

스펄전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스펄전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나의 가슴에 꽉 차 있던 구름은 걷히고, 내 영혼에 구원의 빛이 비취었다. 아!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감격에 넘쳐 구주의 귀하신 보혈과 단순하고도 명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송하고 싶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지고 왔던 죄의 무거운 짐이 바로 나의 어깨 위에서 영원히 굴러 떨어져 버렸을 때, 나는 존 번연의 천로역정에 나오는 순례자와 같은 환희에 도취되었다. 번연이 자신의 거듭남에 관하여, 넓은 대지 위에서 어린 아이처럼 마음껏 환호성을 지르고 싶다고 외쳤던 말을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훗날 스펄전은 이 거듭남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뉘우침의 포도주 통에서 짜낸 포도주는 실로 값진 것이다. 회개의 광산에서 채굴한 금이야 말로 정금인 것이다. 깊은 고통의 동굴 속에서 발견된 그러한 진주들이야말로 참으로 찬란한 것이다. 깊고도 비통했던 죄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체득한 그러한 영적 체험은 실로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죄를 받고 자기의 목에 오랏줄이 묶여 있었던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서 구세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사람인 것이다. 비록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승리를 쟁취한 하늘의 천천만만 군대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번민해 본 경험이 없다면, 죄악에서 돌이켜 새로운 마음을 허락받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